

기아 탄소중립 전략 공개...“2040년 전기차만 생산·판매”

내년까지 협력업체 탄소배출 파악...공동투자·교육·금융 지원
해양 생태계 조성·복원 사업 ‘블루카본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
2040년까지 전세계 사업장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배출 0 달성

기아가 오는 2035년 유럽 시장을 시작으로 2040년 주요 시장에서도 판매하는 모든 차량을 전동화 차량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기아는 최근 기업 비전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발표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2045년 탄소중립’을 제시했다.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와 ‘지속가능한 지구’,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지향점으로 삼고 탄소배출 감축 및 상쇄에 나서기로 했다.

204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97%까지 감축하고 적극적인 상쇄 방안을 모색해 자동차의 사용 단계는 물론 공급, 생산, 물류, 폐기 등 가치사슬 전 단계에 걸쳐 순 배출량을 제로(0)화 한다는 방침이다.

◇2040년 주요 시장 전동화 전환 100%=기아는 2035년 유럽 시장을 시작으로, 2040년 주요 시장에서도 판매하는 모든 차량을 전동화 차량으로만 구성해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없앤다는 계획을 세웠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속가능한 이동수단’을 구현하기 위해 공급 단계부터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판단, 선제적으로 주요 부품 및 원소재 공급망의 탄소배출 감축 지원에 나선다.

우선 1차 협력업체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체계를 내년까지 구축,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한다. 협력업체의 장기적인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업체가 달성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금융지원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한 공정으로 생산된 친환경 ‘그린 스틸’을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급받아 양산차 제조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에 기여하는 ‘블루카본’ 프로젝트=기아는 해양 생태계 조성·복원사업 ‘블루카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탁월한 갯벌의 복원·조성사업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세계 5대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활발하고 광범위한 실증을 실시, 이를 통해 다양한 갯벌 조립 방법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갯벌은 내연기관차 11만대가 한 해 배출하는 양인 26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전기차 ‘더 기아 콘셉트 EV9’ 프리뷰 이미지.

해외에서는 내년부터 네덜란드 비영리단체 ‘오션클린업’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를 위한 협업과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한다. 단순한 청소를 넘어 수거된 폐플라스틱을 완성차 생산에 재활용하고, 오션클린업의 바지선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30년까지 완성차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률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40년 전 세계 사업장 재생에너지로 전환=기

아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 전력 수요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을 달성하기로 했다. 2045년까지 모든 생산현장 및 사무시설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우선 해외사업장에서 2030년까지, 국내 사업장에서 2040년까지 에너지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외 생산 거점 중 슬로바키아 공장은 이미 2019년부터 100% 재생 에너지로만 가동 중이다. 빠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단계적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인

도 생산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이밖에 사업장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전량 대체하고, 설비 효율 개선을 통해 매년 1%의 탄소배출량을 감축, 탄소포집재활용(CCUS) 등 다양한 신기술 역시 생산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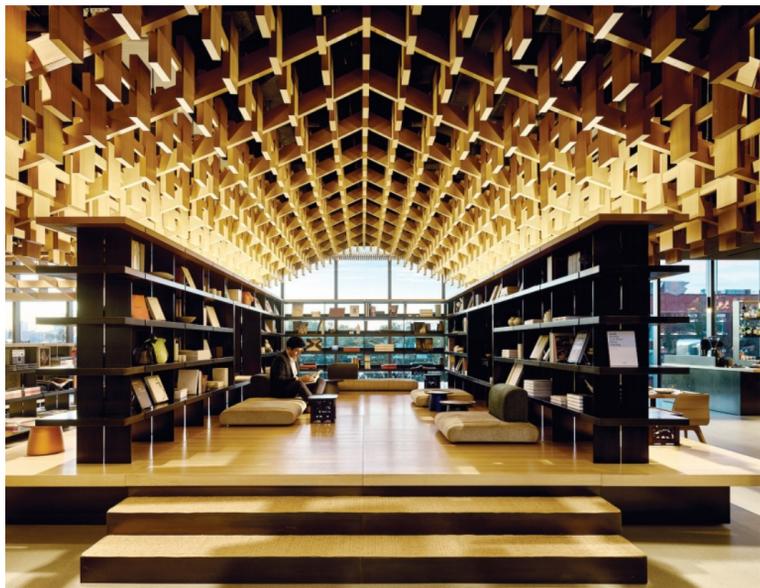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더 기아 콘셉트 EV9’ 프리뷰=기아는 최근 비전 발표회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에 기반을 둔 두 번째 모델이 될 ‘EV9’의 컨셉 ‘더 기아 콘셉트 EV9’ 프리뷰 이미지를 공개했다.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실현에 대한 기아의 강한 의지를 상징하는 ‘더 기아 콘셉트 EV9’은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및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바다 폐기물을 업사이클링(Upcycling) 한 소재가 적용됐다.

차량의 바닥부에는 바다에서 건진 페어망을 사용했고, 좌석 시트에는 재활용된 폐플라스틱 병과 양털 섬유를 혼합해 적용했다. 또 동물 가죽과 달리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비건 가죽을 내장재로 사용했으며, 기아는 단계적으로 모든 차량에서 동물 가죽 사용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더 기아 콘셉트 EV9’은 17일 미국에서 열린 ‘오토모빌리티 LA’ 행사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복합 문화공간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 19일 개관



제네시스 브랜드는 최근 미국 뉴욕시 맨해튼 미트패킹지구에 문을 열 브랜드 복합 문화공간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을 공개했다. 차량 전시를 물론 한식 레스토랑, 다도 체험장, 지하 공연장, 테라스가든 등을 갖췄으며 오는 19일 공식 개관해 매주 화~일요일 운영할 방침이다. <현대차 제공>

벤츠 전기 세단 ‘더 뉴 EQS’ 출시...가격 1억7700만원

1회 충전 478km 주행 가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브랜드 최초의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S’ (The new EQS)의 국내 출시 라인업 및 가격을 최근 공개했다. <사진> 더 뉴 EQS는 지난 4월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벤츠 코리아는 EQS 450+ AMG 라인 모델을 국내 시장에 우선 선보이며 순수 전기차 라인업 강화에 나선 계획이다.

더 뉴 EQS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모듈형 아키텍처를 최초로 적용해 디자인과 공간 설계 측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외관은 하나의 활과 같은 원-보우(one-bow) 비율과 캡-포워드(cab-forward)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인테리어는 첨단 기술과 미래지향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고급적인 공간으로 탄생했다. 전체 계기판 패널이 하나의 와이드 스크린이 되는 MBUX 하이퍼스CREEN(MBUX Hyperscreen)은 더 뉴 EQS에 최초 적용됐으며, 64가지 색상의 조명으로 원하는 스타일과 분위기를 연출하는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Active Ambient Light)도 적용됐다.

또 더 뉴 EQS에 장착된 차세대 배터리는 에너



지 밀도를 크게 향상시켰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는 무선 업데이트(OTA, over the air)를 지원해 더 뉴 EQS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항상 가장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QS 450+ AMG 라인인 107.8kWh 배터리와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478km 주행(환경부 기준)이 가능하다. 또 급속 충전기로 최대 200kW까지 충전을 지원하며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30분이 소요된다.

더 뉴 EQS에는 첨단 주행보조 및 편의사양도 대거 탑재됐다. 벤츠의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와 고해상도 조명 시스템을 탑재한 디지털 라이트 기술이 적용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됐다. 한편 더 뉴 EQS는 오는 25일 개최되는 2021서울모빌리티쇼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일 예정으로, 가격은 1억 770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